

영풍군 권길, 상주 총렬사 제향

영풍군 권길(權吉, 추밀공파 22世)이 배향되어 있는 임란북천전적지 경북 상주 총렬사에서 6월 4일 11시 강영석 상주시장, 권세환 총렬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이경옥 상주시의회 부의장, 김홍배 상주문화원장, 성우재 총렬사운영위원회 전임 위원장, 권양희 상주시 문화예술과장, 권기준, 권영무, 권기훈, 권오규, 권태수, 권영우 등 영풍군 후손, 권행완 편집국장, 상주시 일본인회 후루카와 타쿠히로 회장 등 100여 명의 후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32주기 제향이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은 강영석 상주시장, 아헌관 이장구, 종헌관 김사호, 대축 이현우, 집례 고명환으로 분정하였다.

권세환 운영위원장은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엄숙하게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일본인회(회장 후루카와 타쿠히로)는 "임란 호국선열들께 일본의 과오를 사죄드립니다"라는 조화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후루카와 타쿠히로 회장은 13년 전부터 일본인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총렬사 제향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다고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일본은 후손들을 위해 교육도 시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이웃을 짓밟는 무도한 짓을 저지르면 되겠는가?

영풍군 권길(權吉, 1541~1592)은 1591년 상주판관(尙州判官)으로 부임하였다. 다음 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상주목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소백산으로 도망갔다. 순변사 이일은 싸우다 패하여 달아나 버렸다. 영풍군은 병졸들을 모아놓고 "진중보국(盡忠報國)할 날이 지금이다. 나라를 건지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독려하며 성주가 없는 상주성(尙州城)을 호장(戶長) 박결(朴傑)과 함께 끝까지 지켰다.

영풍군은 전투에 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속적삼에 헬서로 유서를 써서 말안장 속에 넣어 놓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다. 일본군은 몰밀듯이 밀려왔다. 그러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사력을 다해 최후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복원은 피로 물들고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풍군이 평소 타고 다녔던 애마는 주인이 전사하자 며칠 만에 고향인 충북 음성 소이면 갑산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며칠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애마는 상처투성이에다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날뛰었다. 부인은 보자기로 말의 눈을 감싸 안정시키고 말의 안장 사이를 살펴보니 속적삼에 헬서로 쓰여진 유서가 있었다. "나는 국가를 위하여 이곳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나의 시체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니 이것으로 대신하여 장사를 지내라." (吾必死此 似難收屍 以此歸葬)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영풍군의 유언에 따라 집안사람들은 옷자락을 수



영풍군 후손들 참제. 권오규, 권기준 문경공 증손, 권영우, 권기훈, 권영무(왼쪽부터)

습하여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능안의 덕현산 선영 아래에 장사하였다. 애마는 주인의 전사 소식을 전해준 뒤 먹을 것을 마다하고 굶어 죽었다고 한다. 증손 권기준이 기억하는 전설에 의하면 영풍군의 애마는 의관을 내려놓고 다시 상주로 출발하다가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집안사람들은 애마를 갑산리 뒷산에 후이 장사지내고 '총마총(忠馬塚)'란 묘비를 세웠다. 근래에는 제단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호장(戶長) 박결(朴傑 1568~1592)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영풍군 상주판관(判官) 권길(權吉)과 함께 상주북천전투에 참전하였다. 영풍군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자신을 보좌했던 호장(戶長) 박결(朴傑)에게 "내가 죽을 곳은 마땅히 여기이니, 빨리 피신하여 살길을 찾아라"라고 했으나 그는 영풍군을 호위하여 울면서 "아후(我侯)가 나라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아후(我侯)를 저버리리오"라고 하며 영풍군과 함께 분전하다 장렬히 순절(殉節)했다. 그때 나이 25살이었다. 1675년(숙종 원년) 상주유림(尙州儒林)은 성(城)의 북쪽에 권길사(權吉祠)를 세워 영풍군을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호장 박결 또한 배향했다. 이후 1698년(숙종 24)에 권길사(權吉祠)를 총렬사(忠烈祠)로 사명을 변경하여 배향하다 1865년(고종 2) 훼손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러나 1993년 5월 30일 총렬사와 윤섬을 배향한 충신사당을 합향하다 보니 총렬사의 주벽이 판관 권길에서 종사관 윤섬으로 바뀌고 말았다. 상주 유림에서 증직을 기준으로 배향 위치를 정했다고 한다. 윤섬은 영의정을 가증 받았고, 권길은 이조판서로 증직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임전무퇴의 결기로 싸



웠던 임진왜란 당시의 품계로 따지면 판관은 종5품이고 종사관은 군영에 딸린 종6품이다. 영풍군의 품계가 더 높다. 또한 영풍군은 1541년생이고 윤섬은 1561년생이다. 영풍군이 윤섬보다 20년이나 연장자이다. 장유유서는 삼강오륜의 핵심 덕목 아닌가. 품계로 보나 삼강오륜의 인륜 질서로 보나 뭔가 초점이 불일치하다. 이 문제는 서예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후손들의 변호시비와 유사한데 상주 총렬사에서는 왜 아직까지 위치(位次) 시비와 작헌(酌獻) 시비 하나 없었는지 그게 더 이상하다.

권행완 편집국장

정유재란 때 나라를 구한 명신(名臣) 충정공 권협 선생②

안동권씨 충정공 종회



충정공 권협 영정

이들 권희와 권협 형제는 나라와 당년 82세로 기력조차 없던 어머니의 걱정이 태산 같아 오래도록 수심에 잠겨 의논하였다. 권희가 서울을 떠날 때 둘째 형님 황(愾)에게 어머니를 통진 선산 아래로 피난도록 하고 왔다는 권희의 말과 왜적의 한 무리가 김포를 함락시키고 이내 통진으로 향하고 있다는 황해감사의 장계로 소식을 알고는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산란하나 함께 주상에게 상소하기로 하였다. 선산 근처나 강화로 피란길에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찾아 돌 중의 하나는 통진과 강화로 가 모친의 시신이라도 김포통진 선산에 수습하기 바란다고 상소를 올리자, 선조 임금은 권희에게 강화도에 들어가 피란하던 모친과 만나게 하였다.

권협은 행재소를 지키고 있는데 해질 무렵 대신들이 모여들고 종친들도 모여들었다. 그러나 지금 피란하기에는 막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조정 신료들은 자기 몸만 살려고 피란 길에만 정신을 쓰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종친 중 한 사람이 지금 평양성을 버리시면 견장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고하자 선조는 "백성들을 두고 피란은 가지 않았다. 모두 물러들라"고 하였다. 그러나 종친들은 그 말을 쫓겨 민지를 앓고 수근거렸다.

평양에서 충신회의가 열렸다. 신하들은 한결 같이 선조에게 평양 백성들이 성을 죽음을 다해 지키겠다고 하니 이럴 때 전하께서 성을 버리신다면 백성들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고했다. 그렇지만 선조는 평양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선조는 형세가 정히 불리해지면 평양을 떠날 생각이 있었고 결국 이항복과 권협 의의에 따라, 의주로 피난을 갔다가 사태가 위급하면 명나라로 들어가 관망하면서 수습하는 방안을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6월 4일 사기를 돌우고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연관정에 괴력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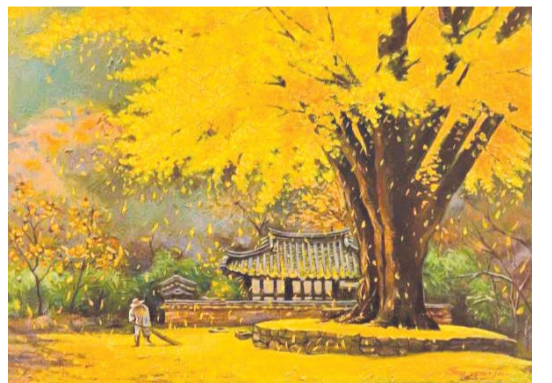
치하고 무과 시험인 활쏘기 대회를 열게 하였다. 평양에 있는 신료들은 물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

권협은 시험관으로 출장했다. 그런데 한 손에 활을 잡고 허리에 화살을 차고 당당하게 활줄을 당기는 자가 있었다. 화살을 스물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정확하게 맞추니 모든 사람들의 찬사가 터져 나왔다.

선조도 훌륭한 솜씨라고 기뻐 찬사를 보내며 이름을 물었다. 권협이 그자의 이름이 김진(金珍)이라고 고하자 선조는 합격시켜 윤두수를 돕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고, 부응교(副應敎) 심희수를 시켜 백성들 앞에서 평양을 끝까지 지켜 싸우라고 교지를 내렸으나 마음이 불안하여, 6월 6일 아침에 왕비와 왕자 후궁들을 먼저 함흥 방면으로 보냈다. 선조는 모든 백성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에 평양성을 빠져나가려고 행궁 앞에 타고 갈 말들을 늘어 세워놓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운곡서원 압각수 그림 전시회 개최

서연진 작가의 개인전 '꽃 피기를 기다리다 내가 봄이 되었다'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인사 1010'에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열렸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작품활동을 해 온 작가의 최근 작품 50점을 소개했다. 작가는 추상을 추구하는 현대미술 추세와 달리 소재를 특정하지 않고 인물, 나무 등 보이는 대로 구도와 색감을 꼼꼼히 따져가며 사실적인 구상을 그리고 있다. 그중에 천년 고도 경주 운곡서원의 은행나무가 작가의 대표작이다. 이번 전시에서 운곡서원의 압각수가 관람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시간의 꽃

편집국장(이하 국장) : 어떻게 운곡서원 압각수를 그리게 되셨나.

작가 : 운곡서원에 갔다 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너무 인상이 깊고 좋아서 그랬다. 제가 좋아서 그러서 그런지 주변 반응이 좋았다.

국장 : 왜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나.

작가 :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절에 있냐고 궁금해한다. 절이 아니고 경주 운곡서원이라고 하면 꼭 가봐야겠다고 하며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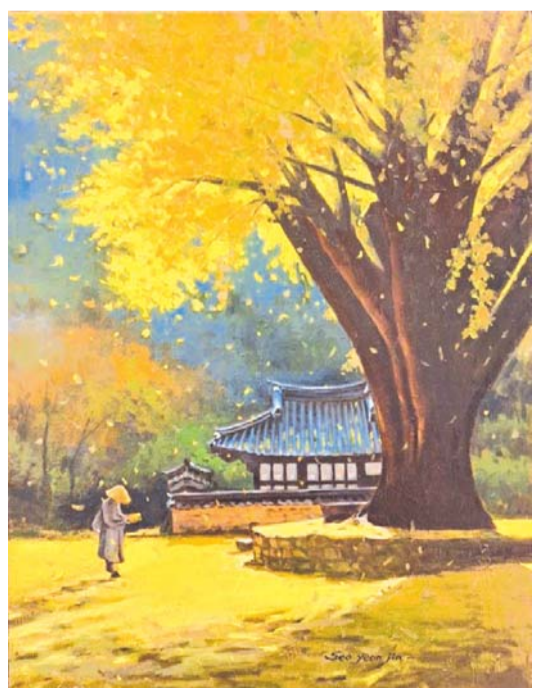
국장 : 다른 압각수와 다른 점이라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작가 : 용문사 등 한국 사찰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 많다. 운곡서원 압각수는 볼 때마다 예쁘고 품위도 있고 나무 전체가 어울려진 곳은 드물다. 울 가을에 꼭 다시 가보려고 한다.

국장 : 안동권씨와 무슨 인연이라도 있나. 또 압각수에 얽힌 사연은 알고 있나.

작가 : 특별한 인연은 없다. 운곡서원에 안동권씨 시조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압각수에 얽힌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국장 : 운곡서원은 시조 태사공을 주벽으로 죽림공 권산해와 귀봉공 권덕린을 배향하고 있는데, 죽림공이 단종의 이모부이다. 계유정란이 일어나자 죽림공은 고향 예천으로 낙향하여 두문불출한다. 사육신의 단봉북위운동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붕에 올라가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만다. 이후 정조 때 후손 갈산공이 단종사화로 화를 입은 충신들을 억울하게 여겨 한양에 올라가 정조의 어가행렬을 막고 눈물로 호소하고, 격쟁으로 부당함을 거듭 호소하여 신원이 회복된다. 갈산공은 곧바로 금성단에 죽림공이 신원 되었음을 고유하고 금성단에 죽림공의 이름을 올린다. 그때 마침 금성단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의 가지를 꺾어 지금의 자리에 심었는데 그 가지가 자라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래



기원

서 후손들이 압각수 앞에 갈산공 비석을 세워 이를 기념하고 있다.

작가 : 그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 압각수였군요. 다시 보게 됩니다.

작가는 말한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낯선 곳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 하지만 해 아래 그 어디에도 새로운 것은 없나니 머리로 덧셈 뺄셈해서 그리기 보다 마음이 가는 대로 표현하고 누군가 나의 마음 색과 같은 이가 있어 고개를 끄덕여 준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으리. 달이 지고 해가 뜨는 비가 오고 바람 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 같다고.

작가는 2019년 뉴욕 아트페어 특별상, 2023년 한국미술진흥원 특별기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불교신문에 연재 중인 '동화로 읽는 화엄경'에서 삽화를 그리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역사상 최초 성화(聖火) 채화!

제3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지난 5월 4일 안동권문의 분향 안동에서 3000여명의 족친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회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역대급 대회로 기록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개최된 청장년체육대회가 역대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청장년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성화 채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최처에서는 성화 채화 전에 먼저 시조 태사공께 제3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가 안동권문의 분향에서 개최됨에 따라 태사공 묘소에서 성화를 채화한다는 사실을 고유했다.

성화 채화 현장에는 7선녀들이 도열하여 성스럽고 역사적인 채화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이 내려준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 점화에 성공, 성화를 채화했다. 하늘도 땅도 감동한 듯 따뜻한 햇빛을 허

여해 주었다. 시조 태사공의 음덕으로 성화를 채화하자 이번에는 성화 봉송을 위해 활활 타고 있는 성화봉을 7선녀가 첫 주자에게 인계하며 성화봉송은 시작됐다. 성화봉송 주자의 첫 릴레이는 시조 태사공 묘소 입구 표지석 앞에서 진행되었고, 행사장까지는 차로 봉송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순간 권영호 준비위원장이 성화를 치켜들고 운동장에 입장하는 역사적인 순간, 참가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성화를 뜨겁게 맞이했다.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인계하고 마지막 주자가 성화대에 올라서 점화하자 축포와 함께 안동권문을 밝히는 성화는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또 타올랐다. 안동권문의 꿈과 희망과 화합과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권행완 편집국장



성화 채화를 고유하고 있다.



성화 채화에 성공하자 7선녀들이 성화봉에 점화

2024년 안동권씨능우회 6월 월례회 개최

안동권씨능우회(慶優會; 회장 권오직) 주최 2024년 6월 월례회가 6월 11일 오후 6시 30분 안동시 평화9길(평화동) 한정식 청문에서 정원 34명 가운데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권영호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월례회는 시조 묘소 망배, 상음례, 회장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권오직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 4일 제33회 안동권씨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 때 능우회원 20명이 참석하는 등 몹시양면으로 능곡회를 도와주어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삼복

더위가 다가옴에 따라 몸조심하자"고 당부했다.

권영호 사무국장은 능우회 2대 회장을 역임했던 국립 안동대 권영준 전 교수의 별세 때 지난 2월 16일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특실에 합동조문을 하는 등 울 들어 지난달까지 일어났던 7건의 경과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다. 재무 보고에서 권영호 국장은 정기예금 6백만 원, 보통예금 3백30여만 원 등 총 잔액이 9백30여만 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기타 토의에서 권오직 대총회 안동사무국장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안동시청 강당에서 영가



지학술대회가 열리는데 많은 참석을 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가 끝나자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